

[기 고]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 민학기

이제 신도조직 네트워크다

한국의 종교지형에서 불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수승한 가르침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라는 답은 내놓으라는 질문이 아니다. 조계종 2교구(용주사) 신도회장인 민학기 변호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논의를 제안했다. 3회에 걸쳐 민회장의 제안을 신는다.

평범한 사건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이리저리한 교계 내부의 갈등을 접하는 불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역사적으로 '정교분리원칙' 이

라는 헌법원칙이나 '종교간 평화' 라는 구호는 약자가 큰 세력에 저항할 때 사용되던 용어이다. 이제 불교계가 국가와 다른 종교를 향하여 '정교분리원칙' 이니 '종교간 평화' 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불교계가 그만큼 왜소해졌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4대강 개발과정에서 낙담보 마에불이 훼손됐을 때 종단의 최고 행정수반이 직접 나서서 보호를 호소하는가 하면, 일련의 불교계 폐쇄사건에 불자들의 상처받은 감정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더 아리게 한다.

불교계 신도단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였던가. 얼마 전 경기도의회 불자위원회의 출범하는 자리에서 어느 고위공직자는 "1200만 경기도민 중에 불교신도는 170만명으로 16% 정도" 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인 수행에 치중해 사회적인 활동에 소극적인 불자라면 16%이더라도 사회적으로 10% 이하의 영향력 밖에 갖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적 활동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범위 참석자의 90% 이상이 여성이고 그것도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앞으로 2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몇 명이나 남을 것인가. 남성 신도와 어린이 불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를 고민하지 않는 불자는 없을 것이다. 어떤 종교보다도 광범위한 진리를 설명하여 우주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부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추락했는가. 한때 성철 스님의 열반에 자극 받은 불교계는



신심이 활화산처럼 타오른 적이 있었다. 법정 스님의 열반을 추모하는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 바로 잊고 있었던, 외도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공략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고 대중 속으로 전교하였듯이,

부처님 열반 후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승단을 구성해 부처님의 수행, 전교와 보살행을 그대로 이어왔다.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으면 신도들이 직접 나서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스님들은 수행과 전교에 힘쓰고, 재가불자들은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보살행을 실천하고 종단과 스님들께서 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외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이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여유가 없다. 이 땅을 대립과 투쟁의 반복에서 해방시켜 만민이 평등과 평화의 세상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불국토의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외호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스님들이 직접 외도

들을 상대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불자들이 스스로 힘을 합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을 대중사회 속으로 전파해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외도들이 불교계를 무시해가며 '땅밟기' 라는 이름으로 사찰 안까지 넘나들면서 짓밟는 행패를 외도들 스스로 자제하게 하려면, 대중사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 사회적인 힘을 갖추어 부처님 가르침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신도들의 조직화와 연계, 활동적인 운영을 통해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온누리 구석구석에 고루 비칠 날을 기대한다.

불교평화 관련법 제정 촉구

불교사회정책연구회 법안 공개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에 대한 일부 기독교계의 호전적인 도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국가의 안녕 유지, 국민화합을 위해 즉각 중지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관련법을 제정하십시오." 불교사회정책연구회 법안팀은 11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게 불교평화에 대한 공개 제안서를 발표했다. 법안팀은 서울시장 시절 이명

박 대통령의 서울시 봉헌 운운 사태와 사찰이 무너져야 한다는 기도, 청와대 예배, 개신교계(특정 교회 출신) 중심의 인사, 청와대 정부직 공무원 종교조사,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의 사찰누락 등 현 정권 집권을 전후로 노골적이며 의도적인 종교편향 정책이 오늘의 갈등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개신교 지도자들에게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여 '기독교인에 의한 역사 퇴보'

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신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불자들이 국민들에게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일부 기독교계의 불교평화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깊이 인식할 것과 △일부 기독교계의 호전적 행태에 대해 질타해 종교 갈등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 △바른 신앙 활동을 통한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언 기자

인사검증제도, 불교평화 성명서 채택 성과

조계종 제185회 정기중앙총회... 회기 단축 16일 폐회



제185회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 종회의원 스님들이 본회의 전 삼귀의례를 하는 모습. 사진=박재관 기자

11월 16일 제15대 중앙총회 개원총회로 열린 제185회 정기중앙총회가 폐회했다. 제185회 정기중앙총회는 종회의장, 상임부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외에 인사심의특별위원회 구성과 3년만의 중정감사 실시 및 보고, 불교평화 관련 특위 및 성명 채택 등 성과를 이뤘다.

인사 심의 특위 구성 중앙총회는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번 회기부터 총회에서 추천·선출된 인사를 대상으로 인사특위에서 자격을 심의하기로 했다. 인사특위 위원장에는 종회의장 지명호 지홍 스님(무소속)이 선출됐으며 주경 일본 덕문원장 태관 스님 등 각 종책모임 별 종책위원장과, 의장단이 추천한 태연 대오, 비구니 일운스님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불교 평화 대응 나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신교계의 불교평화에는 중앙총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나선 것도 주목된다. 중앙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종교차별 종식 및 국내 종교평화 확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주경 스님이, 위원은 9인으로 활동기한은 4년이다. 위원은 위원장과 종회 의장단이 위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앙총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교평화에 대한 성명서

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향적 스님을 위원장으로 불교 규제관련 국가법령 제 개정 및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은 11인으로 활동기한은 2년이다.

회기 단축 관례화 문제 중앙총회는 11월 16일 불기2555년 중앙총회기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폐회했다. 2011년도 조계종 중앙총회기과 예산은 일반회계 218억 4000만 원과 특별회계 105억 4000여 만 원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서는 결계와 포살 미필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결계및 포살에관한법 개정안, 독신 균승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균승특별규범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강원을 선학 전문대학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의 교육법 개정안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 밖에 종무원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이월됐다. 초선의원들의 대거 입각으로 기대를 모은 185회 중앙총회 정기총회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여전했다. 특히 17-18일 수능기도로 인해 무리하게 회기를 단축시켰다. 회기 단축으로 각종 법안은 이번에도 이월돼 아쉬움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특보단장 정념 스님

불교신문 사장 수불 스님, 주간 장적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관 단장에 정념 스님(중앙총회의원, 前 낙산사 주지)이 임명됐다. 스님은 재무담당 종책특별보좌관도 겸직한다. (인터뷰 4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념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회의에도 참석해 종단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달라"고 말했다. 특보단장은 사서실 설치령에 의해 임명된다. 총무원의

참여시에는 발언권만 있을 뿐 의결권은 없다. 이에 앞서 16일 불교신문 사장에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을, 주간매 장적 스님을 임명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해외특별교구 담당특보에 무애 스님,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담당특보에 성호 스님, 종단 전산화 담당특보에 정범 스님, 승가복지 담당특보에 초경 스님을 임명한다. 조동섭 기자

"소신있게 하겠다"

무소속 의원 각오 밝혀

지홍 스님(직능대표) 지현 스님(고운사) 법안 스님(직능대표) 직전·삼해 스님(월정사) 성우·원혜 스님(금산사) 등 7명의 무소속 총회의원 스님은 1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에의 각오를 밝혔다. 무소속 스님들은 이날 '제15대 중앙총회 개원에 속하지 않은 종회의원들의 입성' 제하의 글에서 △종현종법 준수 풍토 조성 △건전한 토론과 소통, 화합 상생의 문화 조성 △소신 있는 입법활동 전개 등 7개항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봉

財團法人 大韓佛教 一鵬禪教宗

第4世 宗正 慧松堂 鵬海 大宗師 49齋

행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0월 11일 열반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제4세 종정 혜송당 봉해 대중사의 종단장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및 사회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다시한번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어느 덧 큰스님의 49회향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회향일 : 불기 2554(2010)년 11월 28일(음 10. 23)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 호불사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65-2)

- ❖ 증 명 : 금봉, 무찰, 청송
- ❖ 고 문 : 명종, 원각, 도기, 수암, 송은, 혜천, 법운, 혜성, 지산,
- ❖ 호 상 : 용암, 법성, 법해, 석성, 해동, 해광, 법선, 도안 의문,
- ❖ 장의위원장 : 화엄
- ❖ 지도위원 : 용은, 지연, 법영, 보월, 무상, 지현, 현암, 김지현, 보해, 동청, 영우, 광은, 승원, 고봉, 용주, 삼주, 지운, 경운, 상원, 광명심, 영수,
- ❖ 장 의 위 원 : 덕봉, 재성, 정일, 도정, 만성, 혜일, 자명, 경담, 자건, 지연, 대각, 도허, 경담, 일운, 지우, 일명, 이봉, 대원, 청정심, 보현, 정행심, 불심행, 법연, 령신, 천공, 선행심, 금비 청정심, 무경, 법광, 무상, 보리심, 청호, 자운, 해월, 지산, 법연, 승법, 성각, 도우, 금진, 천도, 문수, 해관, 현담, 대성, 제법
- ❖ 문 도 대 표 : 경원, 대원, 봉원, 청원, 기원, 혜성

(財)大韓佛教 一鵬禪教宗 宗正 慧松堂 鵬海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臨終偈

春山日出照千里
 (춘산일출조천리)
 秋峯葉盡藏真心
 (추봉엽진장진심)
 生死涅槃是虛夢
 (생사열반시허몽)
 落霞老松孤雁歸
 (낙하노송고안귀)

봄 산능선에 해가 떠서
 온 세상을 비추고
 가을 봉우리는 옷을 벗고
 참된 마음 보여주는 구나
 생사열반이 허망한 꿈이려니
 저녁노을이 노송에 비추고
 외기러기는 귀향길 나르네

悟道頌

不知晝夜過日月
 (불지주야과일월)
 流水啼鳥聞處處
 (류수제조문처처)
 開戶四山萬花笑
 (개호사산만화소)
 十方世界光明輝
 (시방세계광명휘)

낮밤 모르도록 시간이 지났는데
 흐르는 물소리와 지저귀는
 산새소리 곳곳에서 들리네
 문을 열치니 온 세상에
 꽃들이 웃고 있고
 시방세계에 광명이 비치네